

가슴에 되새기는 '영혼의 모습'

1974년 1월

-어떤 無知覺者의 노래- 法頂

4
정월 초이름
얼어붙은 추위 속에
또 누가 나를 부르느냐
非常高等 軍法會議
檢察部
엄리청의 使者처럼
召換狀을 내미는 가죽 잠바 들
나는 또 검은 코로나의 신세를 진다
(중략)

7
실려 갔다가
내발로 휘적휘적 돌아오는 길은
새삼스레
人間事가 서글퍼지네
기는 것은 짐승이요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은 사람이라고
人類文化史에는 똑똑히 박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
이러고도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까
거죽만 사람인 人非人, 人非人
기어 다니는 짐승들 보기가 부끄럽네.

연란불이 꺼진 썰렁한 방안
그건
우리 時代
이 地域의 氣溫
나는 춥고 억울해서
오늘 오늘 편다
(중략)

8
우리는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一部 物지각한 者
大韓民國 住民 3천 5백만
다들 말장한 知覺을 지녔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知覺을 잃었는가.
아, 이가 아리다
어금니가 아리다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니
이가 아리는가
들어줄 귀가 없어 입을 다루니
이가 아리는가
오늘도 나는 부질없이
齒科醫院을 찾아 나선다
흔들리는 그 계단을 오르내린다.

'1974년 1월'은 법정 스님께서 유신철폐 운동 당시의 심경을 읊으신 8장 174행의 장시로 <세월의 소리> 1975년 1·2월호에 게재됐다. 35년 전 최정희(前 본지 편집국장)씨가 노트에 옮긴 것을 발췌했다.

법정 스님을 기리며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법정 스님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비구' 이셨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길상사를 떠나시던 날, 스님 법구 앞에 선 '비구 법정'이란 위패는 간단명료했다. 생전의 스님처럼, 평상에 누우셔서 가사만을 덮으신 스님의 법구는 마지막으로 들려 주는 무언의 설법이었다. 남아있는 이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도 있었겠지만 '군더더기, 군더더기, 몸과 마음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떠올랐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아마 그분들도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가셨을 것 같다. 금년 1월 조계사 경내 불교중앙박물관 '석굴암 백년의 빛' 전시에서 나는 부처님 10대 제자 사진을 보는 순간 "법정 스님"이라고 말해 주위 시선을 끈 일이 있다. 아마 스님의 저서 <말과 침묵>(초판본) 표지에 실린 석굴암 10대 제자 중 한 분의 존자님 사진이 눈에 띄어서 그랬나 보다. 그 책 표지의 존자님 모습이 법정 스님과 많이 흡사했다. 어쩌면 부처님 제자 중의 한 분이 대한민국의 법정 스님으로 오셨는지도 모른다. 법정 스님은 철저히 비구이셨다.

스승은 찾아 헤맬 때 만난다

1973년 1월, 나는 일간신문에서 법정 스님의 저서 <영혼의 모습> 기사를 읽었다. 내 친구가 먼저 그 책을 샀기에 나는 빌려 읽게 되었다. 그 책을 빌려 읽던 나는 노트에 <영혼의 모습>을 옮겨 쓰기 시작했다. 그 책을 옮겨 쓰는 동안 나는 많이 설레었다. 책과 마주하기 전 설레었고, 마주하면 마주했기에 설레었다. 책을 옮겨 쓸 때는 늘 손을 깨끗이 씻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경하는 마음이었다.

그해 4월 1일 오후, 친구와 나는 봉은사 다래현에서 스님을 보았다. 그날 낱생 처음 녹차를 마셨다. '러브스토리'와 '월광곡'도 들었다. 이렇게 다래현에 신고식을 한 친구와 나는 수시로 다래현에 가서 마음을 씻었다.

같은 해 6월 10일, 나는 <영혼의 모습>을 옮겨 쓴 노트를 스님께 보여 드렸다. 스님께서서는 웃으셨다. 그리고는 그 노트에 '讚. 허허, 참 별 일도 없네. 어쨌든-, 극성쟁이 만세!' 라고 사인과 함께 써주셨다. 즐겨 쓰시던 낙관과 전각도 찍어 주셨다.

"스승은 우연히 만나지 않는다. 찾아 헤맬 때 내 앞에 나타난다"

스님께서 외국어대 불교학사회 창립 4주년 기념강연에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내 인생의 큰 스승을 만났다. 어찌 큰 복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자주 떠올리는 스님의 가르침이 있다. '너무 일찍 나왔군'이다. <영혼의 모습>에 있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다. "배를 타고 봉은사에 오기엔 시절, 폭설나무의 나뭇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 자동차, 수레 등 적재량이 차 아 움직인다. 시간 예측을 할 수 없어 허겁지겁 강변에 다다르면 한 걸음 앞서 배가 떠나고 있거나 저쪽 기슭에 매달린 채 부동자세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조금 늦을 때마다 '너무 일찍 나왔군' 하고 스스로 달래는 것이다. 다음 배편이 내 차례인데 미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버스타 전철을 타러 갔을 때 한 발 늦어 차를 놓칠 때가 중

중 있다. 특히 출근시간이나 약속시간이 빠듯해서 숨지게 달려갔는데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볼 때 몹시 아쉽다. '조금 일찍 나올 걸' 후회하다가 생각을 돌린다. '너무 일찍 나왔군'으로.

스님께서서는 '너무 일찍 나왔군'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들쭉날쭉하게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을 것이다."

다래현 오솔길의 향기

봉은사 경내에서 다래현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은 고즈넉했다. 숲은 향기로웠고 산비둘기가 울었다. 다래현 나무 울타리 앞에 다다르면 오른쪽으로 웅담샘 약수가 있었고, 샘물은 연못으로 흘러들었다. 연못에는 금붕어와 수련이 있었다. 스님은 금붕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대화하셨고, 수련을 제복 입은 수녀님들에 비유하기도 하셨다. 다래현은 단청을 하지 않았다.

다래현 마당 꽃밭에는 꽃나무가 많았다. 스님은 패랭이꽃을 좋아하셨다. 여름이면 합창하듯 패랭이꽃이 피었다. 어느 날 내 허리쯤 올라온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려 하자 스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도 흠치는 마음"이라고 일러 주셨다. 지금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꽃송이를 코에 대고 향기를 맡다가 퍼뜩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한다. 주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어디 꽃향기뿐이겠는가.

향기로웠던 다래현 숲에 향기롭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유신철폐 운동을 하시는 스님을 감시하는 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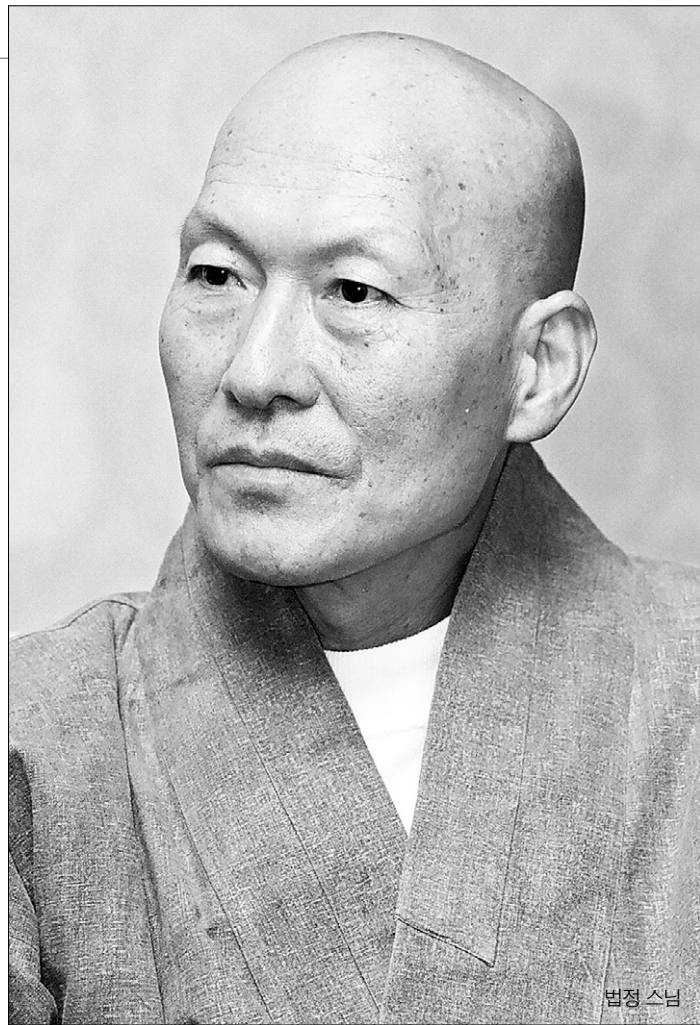
1975년 스님은 송파사 불입암으로 내려 가셨고, 나는 불교신문(당시 대한불교) 기자로 입사했다. 그 후 다래현에 간 일이 없었다. 10여 년 전 봉은사에 갔다가 다래현에 가보았다. 연못도 웅담샘도 안 보였고 다래현의 옛 분위기는 간 데 없었다.

대비(大悲)는 자비 보살의 본질

스님께서서는 불교신문 주필을 오래 하지 않으셨다. 종단이 원하는 기관지보다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사상을 전하는 기회 언제 또는 비판의 글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사실과 천수천안 등은 무기명 칼럼이었지만 스님의 글을 찾아 읽는 것은 독자로서 기쁨이었다.

지혜제일의 사리불존자 같으셨던 법정 스님. 그러나 스님은 대중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귀의하고 실천할 것을 일깨워 주셨다. 스님은 오래 전 '관세음의 노래'를 작사하신 일이 있다. 가사를 다 기억 못하지만 이런 구절이 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나...
나루 구구고난 관세음보살



법정 스님

나루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길상사 경내에도 조금은 슬픈 듯한 백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왜 슬픈 듯한 모습일까. 슬픈 중생들을 다 이루 먼저 거두어 주시려는 대비(大悲)를 지니셨기 때문 아닐까.

스님은 자비를 말씀하실 때 대비(大悲)를 강조하셨다. '보살의 병은 대비(大悲)로부터 생긴 것이다'라는 유마힐의 말처럼 '씨는 남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함께 신음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비는 자비보살의 본질적 생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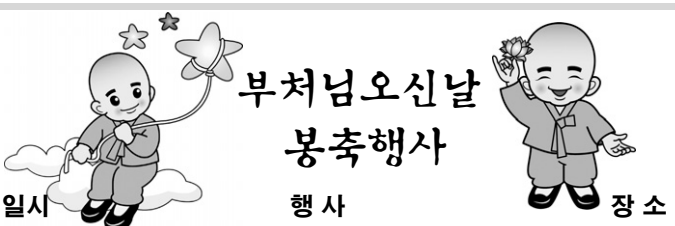
"말씀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매아리를 뜻합니다." -法頂-

스님이 제창하신 '맑고 향기롭게'는 지혜와 자비의 두 기둥을 세워 지혜로워지고(상구보리) 자비로워져서(하화중생) 부처님 되는 길을 가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주말이면 '맑고 향기롭게' 근분도량 길상사를 찾는 이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듯 모여든다고 한다. 불교계는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4월 28일은 법정 스님의 49재일이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하신 스님.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 또 주십시오. <영혼의 모습>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일시	행사	장소
4월 27일 19시	시청앞 점등식	시청앞 광장
4월 28일 19시30분	니르바나 정기연주회 '칸타타 담파파다'	KBS홀
5월 1~2일	난치병 어린이 돌기 3000명 정전기도 회귀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벨틀스테이	조계사 육지장사
5월 2일 13시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영장
5월 3~23일	연등 장엄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1층로비
5월 3~6월 6일	제1회 청소년 디지털사건 공모전/사진전시회	CBJ 갤러리,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5월 5일	불교문화체험 한마당	인사동
5월 6~23일	청계천 등전전시회	청계천
5월 8~16일	연극 아버지의 가수	동국대이해랑예술극장
5월 8일	어린이합창제 연꽃나라, 연꽃들의 합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5월 9일 14시	어울림마당/자비나눔 모금행사	장충체육관
5월 11일 19시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영장
5월 12일	자비의 선물(독거노인, 군장병, 재소자, 군종교구)	조계사
5월 13일~6월 13일	석가달 사리 정엄구 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
5월 14~23일	전통등전전시회	봉은사
5월 15일 19시	연등놀이	조계사 앞길
5월 16일 12시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조계사 앞길
12시	공연마당	조계사 앞길
13시	전국중년대회	광명사
14시	외국인 등산길기 대회	조계사 앞길
16시	화합한마당	동국대 운동장
17시	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	우정국로아외무대
18시	연등행렬	동국대 → 조계사 앞
21시30분	화합한마당(중략 등전시)	중각사거리(보신각 앞)
5월 17~23일	광화문 등전시	광화문광장시민열린마당
5월 21일 10시	봉축법요식	조계사, 전국 사암

법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법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제2교구본사 유주사	남한산성 경기도 봉축점등식 제1회 2교구 어린이 찬불가 율동제 점등식, 연등축제 다문화가족 초청행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남한산성 호원교육원 안성공원 다문화가족 및 시민연 신도대표 서울연등축제 관람 호원교육원 유주사 대웅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봉축 전야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0일 5월 21일	고운사 대웅보전
제3교구 신흥사	점등식 동지승 수계식 제등행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4월 30일 5월 5일 5월 15일 5월 21일	소방서 앞 전광탑 신흥사 극락보전 엑스포광장 각 사암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점등식 봉축법요식 /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14일 5월 14일 5월 21일	해남군민광장 각 사암
제4교구본사 월정사	함께 나누기 어린이 출가체험 연등축제 행복뎀 밝히기, 연등빛 행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오대산 전국디지털 사진공모전 오대산 천년눈길 걷기대회		군 · 재소자 · 불우이웃 등 단기출가학교 진부사내 월정사 대웅전 오대산	제23교구본사 관운사	봉축전야제, 점등식 봉축행사(법요식, 관불의식, 장학금전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0일 5월 21일 5월 21일	관운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어르신 잔치 한마당 사람들의 페스티벌 총독도인 안영 기념법회 보은 유등문화축제 및 제등행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4월 21일 4월 23일 5월 9일 5월 16일 5월 21일	보은국민체육센터 법주사 경내 용화사암 무심천변 보은읍 시가지, 보정천 법주사 대웅전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보은읍 공양과 어울림마당 봉축법요식 / 연등축제	5월 21일 5월 21일	각 사암 선운사
제6교구본사 마곡사	신록축제 봉축 전통등 전시 봉축제등행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1일~2일 5월 1일~21일 5월 14일 5월 21일	마곡사 마곡사 경내 공주교, 공주사내 각 사암	제25교구본사 대흥사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신덕여왕 승모예 거리포교	4월 초 4월 16일 4월 20일 4월 28일 4월 중순경	동화사 국채보상공원 문화예술회관 부인사 가타위/앞산공원
제9교구본사 동화사	봉축대법회 인문 점등식 및 탑돌이 점등전 전시회 봉축선야제 '행복의수레를 끄는아이' 평공산 율예 봉축음악회 & 전통체법마당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15일~22일 5월 16일~23일 5월 16일 5월 21일 5월 21일	동화사 대웅전 동화사대웅전-금당선원 동화사 설법전 앞 동화사 봉황문-염불암 동화사 봉서루 앞 각 사암	제26교구본사 기장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자비광명기원타등식 봉축전야제 자비의손길(경로잔치, 무료급식, 저녁공급, 바자회) 창작등 경연대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연등축제	5월 7일 5월 12일 5월 14일 5월 16일 5월 21일 5월 21일 5월 21일 5월 21일	부산역 광장 사직시립의료원-구덕운동장 부산 광복로 일원 구덕운동장-부산역 각 사암 기장군청-기정동내 기장 체육관삼거리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영천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천안향원생자합동위령제 점등식) 영천 경찰서 봉축탑 점등식 군위사암연합회봉축점등식 경산 경찰서 봉축탑 점등식 경산시암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봉축위원 및 법회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8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4일 4월 26일~5월 16일 5월 21일	영천경찰서 군위광장 경산 경찰서 경산남천 둔치 군부대, 고도소 등 은혜사 대웅전 경주역 앞	제27교구본사 대전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축법회 연등행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5월 15일 5월 21일	각 사암 시정 남문광장
제11교구본사 불국사	봉축법요식, 예술제, 탑돌이	5월 11일 5월 21일	경주역 앞 범영루, 대웅전	제28교구본사 울산	점등식, 태화강 유등축제 제등행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5월 15일	각 사암 시정 남문광장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산사음악회, 저경연대회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일 5월 21일	쌍계사 경내 각 사암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점등식 봉축 전야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14일 5월 20일 5월 21일	범어사 대웅전 각 사암				